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과 온라인 뉴스 생산 전통과 변화의 경계

김경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부교수 kkmo@yonsei.ac.kr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기초를 구성하는 전통적인 뉴스 개념은 전문직주의, 시공간적 뉴스망, 조직적 배타적 게이트키퍼, 뉴스 제작 규범과 관행, 뉴스 작업의 표준화, 뉴스가치, 뉴스양식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근래 들어 저널리즘이 온라인으로 중심 영역을 이동하면서 새롭게 관찰되는 뉴스 현상은 전통과 변화의 경계점에 위치해 있다. 웹 기반의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에선 전통 저널리즘이 이해하는 방식의 뉴스 개념 틀로는 변화하는 뉴스 세계를 정확하게 포착하거나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실상을 분명하게 이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주요 연구 영역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뉴스 개념의 차원과 속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적해 정리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에서 뉴스 생산 조직화의 변화, 저널리스트의 역할을 둘러싼 인식 변화와 실제 간의 긴장, 그리고 뉴스 양식과 뉴스 가치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전통의 지속과 변화의 방향이 뉴스 개념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도록 요청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함의를 추출한다.

KEYWORDS 객관주의 저널리즘 • 게이트키퍼 • 온라인 저널리즘 • 온라인 뉴스 과정 • 열린 지식체계

1. 머리말

인터넷과 디지털 정보 기술이 저널리즘 세계와 접목하면서 전통적인 저널리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저널리즘의 본질을 둘러싼 논란과 더불어 뉴스의 성격 변화와 연관된 다양한 질문을 제기한다. 저널리즘 교과서에서 소개되는 전통적 관점의 뉴스는 개념적으로 무척 다양하다. 그만큼 뉴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스를 정의하는 실무적 관점이건 사회과학적 관점이건(이민웅, 2003) 전통적인 뉴스 개념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몇 가지의 공통 차원과 속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뉴스는 저널리즘 조직에 소속된 전문 직업 저널리스트가 만든다는 오래된 인식이다. 이 같은 시각에선 상당한 기간의 혹독한 훈련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능 그리고 윤리 덕목으로 무장한 직업 저널리스트가 뉴스가치의 판단에서 뉴스거리의 취사선택, 기사 작성과 편집 그리고 뉴스 배포에 이르는 뉴스 생산의 전 과정을 장악한 채 판관의 위치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단과 평가에 따라 뉴스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직업전문주의(professionalism)가 강조된다. 그러나 전문직 규범과 관행이 작동하는 실제 뉴스 제작 현장에선 엘리트 취재원과 직업 저널리스트의 사회적 관계와 정보 교환이 뉴스 취재와 보도의 핵심 축을 배타적으로 구성한다.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알권리에 복무한다는 저널리즘의 기본 가치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매개가 된 사회적 관계에서 저널리스트는 봉사해야 할 수용자 시민에 대해 상대적 우위의 지위를 누린다.

둘째, 뉴스 조직은 폐쇄적이면서 독자적인 게이트키퍼를 통해 뉴스 생산 과정을 작업 관행의 연속으로 표준화함으로써 뉴스 제작의 효율성과 뉴스 품질의 일관성을 담보한다는 점이다. 뉴스 생산을 관통하는 조직 사회화를 통해 내부적으로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도 외부적으로 뉴스 세계를 저널리스트만의 직업적 고유 영역(turf)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저널리즘의 자율성과 정당성을 배타적 권리로 확보해 왔다.

가령 뉴스 조직은 뉴스 과정의 독점화를 통해 현실구성의 주도권을 행사 하는데,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진단하며 도덕적-규범적 평가를 내리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Entman, 1993) 일정한 뉴스 프레임임을 제시한다. 이처럼 통제 중심의 배타적 게이트키퍼 전통에 기초한 뉴스 조직의 틀 짓기를 통해 수용자의 현실 인식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론 형성과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저널리즘은 현실의 정의와 이해에 대한 해석 권위를 발휘하고 이데올로기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셋째, 재귀적 구성주의(reflexive constructionism)에 기반 한 뉴스의 구성과 사회적 진실의 발굴을 등가로 보는 관점이다. 전통적 뉴스 개념은 저널리즘의 본질로서 객관주의 저널리즘(objective journalism)에 기초한 뉴스 정보의 사실성과 보도의 공정성을 진실보도의 토대와 근거로 삼는다.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편견이 배제된 ‘정치 지식으로서 뉴스는 식견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을 양성하고 공공 사안의 이성적 숙의를 유도함으로써 민주주의 의식의 함양은 물론 정책과 제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는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간주돼 왔다. 이 같은 전통 저널리즘의 자부심과 기대의 원천은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사실을 수집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로 가공함으로써 사회 문제의 실체적 진실에 근접할 수 있다는 언론의 독보적 능력과 결부된다. “저널리즘이 끝나는 지점에서 역사가 시작된다.”, “의견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 이 같은 경구는 한결 같이 재귀적 현실구성으로서 뉴스 작업의 사회적 진실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뉴스는 진실을 다룬다.’는 직업 이데올로기의 가치는 전통 저널리즘이 강조하는 뉴스가치와 내용 그리고 이를 뉴스 내러티브로 형식화하는 뉴스 양식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지금의 저널리즘 현장, 특히 온라인 뉴스 현상은 전통과 변화의 경계점에 위치해 있다. 웹 기반의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에선 전통 저널리즘이 이해하는 방식의 뉴스 개념 틀로는 새롭게 변화하는 뉴스 세계를 정확하게 포착하거나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실상을 분명하게 이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은 이 같은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주요 연구 영역

을 중심으로 위에서 제시한 전통적인 뉴스의 차원과 속성이 어떻게 개념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추적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에서 뉴스 생산 조직화의 변화, 온라인 저널리스트의 역할을 둘러싼 인식 변화와 실제 간의 긴장, 그리고 뉴스 양식과 뉴스가치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전통의 지속과 변화의 방향이 뉴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도록 요청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함의를 추출해 본다.

2. 인터넷과 뉴스 생산 조직화의 변화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형성되고 완성된 현대 저널리즘은 한마디로 근대화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뉴스 조직이 설정하는 시공간적 뉴스망(spatio-temporal news net)은 근대적 시공간 개념을 뉴스 제작의 조직화 원리로 저널리즘 영역에 도입함으로써 뉴스의 원천인 사실성의 망(web of factuality)을 구축하고 뉴스의사결정으로서 게이트키퍼 과정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뉴스 조직을 체계화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뉴스 조직의 제한된 자원과 인력은 조직적으로 편제된 시공간적 뉴스망의 적절한 지점에 배열되거나 시간적으로 위치하면서 취재 보도 관행의 전략적 구사와 집단적인 뉴스결정이 이뤄지는 체계적인 게이트키퍼 과정과 일상적으로 맞물리도록 조직화된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 조직은 공공 이해와 관련된 공적 사안을 중심으로 뉴스의 틀을 짓고 사회현실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제작한다(Tuchman, 1978).

이 같은 물질-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객관주의 저널리즘 전통은 개별 조직 단위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인력의 시간-공간 배치의 효율성은 물론 여론시장에서의 영향력과 경제적 수익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화와 조직 사회화 과정(예를 들어, 언론의 전문직화, 윤리 규범 제정,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한 저널리스트의 재생산과 충원 등)에 힘입은 바 크다. 말하자면, 뉴스 생산의 조직적 근대화를 바탕으로 고유한 직업

정체성과 독보적인 해석 권위를 정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널리즘은 뉴스를 통해 현실세계를 정의하는 일에서 누구보다 또 어느 때보다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웹 기반의 인터넷이 저널리즘의 뉴스 생산 과정에 접목되면서 온라인 공간으로 활동 영역의 중심축을 이동한 저널리즘은 뉴스 세계가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인터넷을 필두로 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도래가 초래한 저널리즘의 변화를 추적하는 일련의 연구는 뉴스 생태계의 변화에서부터 뉴스 생산 과정의 변화, 취재와 보도 관행의 변화, 그리고 그 결과인 뉴스 양식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거시와 미시를 아우르며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 걸쳐 뉴스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추적하고 있다(김경희, 2009; 김사승, 2011; 김은미·김경모·김예란·임영호, 2007; 윤영철, 2001; 임종수, 2006; Boczkowski, 2004; Pavlik, 2001).

가장 뚜렷하게 관찰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신문과 방송, 잡지와 통신 등 전통 뉴스 매체가 장악하던 저널리즘 공간이 온라인 환경에서 확장, 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인터넷 공간이 저널리즘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뉴스 생산자와 공급자가 급증하고 다양화됐다. 사실상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할 것이 있으면 누구나 저널리스트가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Bird, 2009).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한 각종 디지털 기기로 무장하고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많은 배낭 언론인(backpack journalist)은 비록 개인 차원에서 저널리즘 활동에 종사하지만 뉴스 생산과 관리 능력 면에서 때때로 전통 매체사의 조직적인 뉴스 편집실에 견줄 만한 능력을 발휘한다. 블로그로 대표되는 이른바 ‘1인 미디어’의 등장이나 인터넷신문의 시민 저널리스트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주요 뉴스 공급자로 등장하며 활약한 지 이미 오래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사회적 관계 매체(social media)를 통해 생산, 재매개(remediation), 유통되는 일반 시민기자의 뉴스(Hermida, 2010; Stassen, 2010), 이들을 통합하는 메타 블로그 사이트, 그리고 오프라인 매체의 뉴스를 온라인에서 재매개하는 포털 서비스의 등장도 뉴스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다. 융합 문화(Jenkins,

2006)라는 시대적 흐름에 직면해 새롭게 생존을 모색하는 전통 뉴스 매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하는 뉴스 조직의 융합을 통해 ‘통합 뉴스편집실’을 구축함으로써(황용석, 2003) 온라인에서도 영향력을 지속하고자 애쓰며, 이 모든 뉴스 행위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일종의 가상 뉴스편집실(virtual newsroom)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가능하다(Pavlik, 2001). 말하자면, 온라인 저널리즘 영역은 뉴스 생산과 조직화의 유비쿼터스를 실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준(準)저널리스트(parajournalist)가 새롭게 등장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활동무대로서 온라인 저널리즘 영역은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듀즈(Deuze, 2003)는 뉴스 생산의 개방과 폐쇄, 정보 교환의 통제와 허용을 두 축으로 삼아 주류 뉴스 사이트, 인덱스와 카테고리 사이트, 메타와 논평 사이트, 그리고 공유와 토론 사이트를 구분했다. 이는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을 자기 목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활용하며 등장한 다양한 뉴스 행위자가 온라인 뉴스 정보의 생산과 공급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온라인 저널리즘이 전통 저널리즘과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과 성격의 저널리즘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전통 뉴스 매체의 직업 저널리스트가 유지해 온 해석적 권위와 정보 공급의 독점권이 약화되면서 전통 매체는 다양한 뉴스 생산자 그룹의 한 하위 구성원으로 그 지위가 떨어지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지위 하락이 다소 과장스런 해석이라면 적어도 온라인 뉴스 시장으로 새로 진입한 신생 뉴스 공급자와 전례 없이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전통 뉴스 매체의 구독률과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익이 떨어지면서 미디어 생태계 자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은 날로 가속적일 뿐만 아니라, 뉴스 수용자군의 분화로 미디어 소비행동과 정보 욕구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고, 진지한 뉴스와 상업적 정보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저널리즘의 고유한 근본 가치 또한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Cohen, 2002; Mitchelstein & Boczkowski, 2009).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가 언제나 ‘전통 저널리즘의 위기’로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개인 저널리즘(personal journalism), 시민 미디어(citizen media), 개방형 저널리즘(open source journalism) 같이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가 전통적인 주류 뉴스 매체의 경쟁자로 또는 잠재적 비판자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대체 또는 보완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블로그스피어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이들이 형편없는 뉴스 품질이나 낮은 정보 신뢰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실에 충실하고 객관성을 강조하는 전통 저널리즘의 직업적 전문성과 윤리성이 오히려 진지한 저널리즘(serious journalism)을 회복하기 위해 더욱 더 필수적인 요소라는 주장이 동시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Jones, 2009; Zelizer, 2004)

저널리즘을 둘러싼 정치 경제적 환경 자체가 급변하면서 전통 뉴스 매체가 유지해 온 뉴스 생산 과정의 조직화 원리도 변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므로 별다른 마감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뉴스 생산의 시간대 역시 전지구화하면서 연중무휴로 확장되고 있다. 마감시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라는 것은 전통적인 시간적 뉴스망의 해체를 암시한다. 시간적 뉴스망의 해체는 그동안 유지해 온 뉴스 제작의 시간적 리듬과 뉴스 유형화(typification)를 둘러싼 관행적 인식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 제작의 표준화 과정이 재구성됨에 따라 전통 뉴스의 장르, 형식, 양식이 해체되고 새로운 유형의 뉴스가 등장할 수 있다(Ward, 2002).

한편, 웹 환경에서 생산되는 온라인 뉴스는 지리적 위치와 공간의 구분이 무의미한 글로벌 미디어의 성격과 더불어 국지적 문화양식과 가치 그리고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로컬 미디어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한다(Singer, 2001). 실제로 온라인 환경에선 사실과 인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고, 여기저기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뉴스거리와 소재를 찾아내고 배경 정보와 맥락 정보를 수집한다. 취재원과의 대면 접촉 대신 이-메일 인터뷰가 늘어나고, 수많은 카페나 블로그 또는 토론 사이트에서 취재원을 물색하기도 한다(Singer, 2003). 관공서와 기업, 각종

사회기관 같이 출입처 제도 중심으로, 또 관료와 대변인 등 엘리트 취재원과 직업 저널리스트 간의 사회적 관계를 토대로 편제됐던 공간적 뉴스망의 유용성이 지리적 경계가 사라진 온라인 세상에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성적으로 유지해 온 기존의 공간적 뉴스망 역시 빠르게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실성의 망을 형성하는 시공간적 뉴스망의 해체는 그동안 전통 저널리즘이 의지했던 조직화의 근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뉴스 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작업 표준화 방식의 변화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시공간적 뉴스망의 해체는 이와 밀접한 조직적 연관성을 갖는 게이트키퍼 과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종래의 시공간적 뉴스망이 해체되는 미디어 조직의 시공간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와 달라지는 뉴스 생산의 새로운 조직화 원리는 무엇이며, 이 원리는 어떻게 전통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가?

온라인 저널리즘은 무엇보다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이 제공하는 기술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뉴스 생산에 도입한다. 이 핵심 특성이 저널리즘 활동을 위해 어떻게 조합되고 이용되는가에 따라 뉴스 생산 과정의 성격이 달라진다. 카와모토(Kawamoto, 2003)에 따르면 디지털 멀티미디어 네트워킹 환경에서 온라인 저널리즘은 크게 하이퍼텍스트성, 상호작용성, 비선형성, 멀티미디어성, 융합, 그리고 맞춤형/개인화라는 여섯 가지의 기술 환경적 특성에 의해 지배받는다. 듀즈(Deuze, 2003)는 이 가운데 미래의 온라인 저널리즘을 새롭게 규정할 세 가지 핵심으로 하이퍼텍스트성(hypertextuality),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그리고 멀티미디어성(multimediality)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온라인 저널리즘의 네 가지 유형(주류 뉴스-인덱스와 카테고리-메타와 논평-공유와 토론)마다 이 기술적 특성을 조합하거나 이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그 결과, 뉴스 생산 과정, 뉴스조직 관리, 그리고 저널리즘 문화 측면에서 제기하는 함의가 서로 다른 다양한 성향의 뉴스 사이트가 공생하는 온라인 저널리즘 지형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온라인 뉴

스의 생산 과정이 확장되는 변화에 주목하는 김사승(2008)은 ‘주석적(annotative) 뉴스 생산’과 ‘이차적(secondary) 뉴스 생산’을 구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뉴스 이용자의 개입과 개방 정도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뉴스는 진화한다고 설명한다. 워드(Ward, 2002)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활용한 온라인 뉴스 생산 과정은 다양한 층위에서 일어나는 뉴스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서로 다른 관심과 관점을 가진 뉴스 이용자들의 접점을 훨씬 다양하게 생성함으로써 잠재적인 뉴스 수용자의 규모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뉴스 생산의 온라인화는 전통적인 게이트키퍼의 변화를 동반한다. 가령, 언급한 온라인 저널리즘의 기술적 특성은 취재 보도 관행의 변화를 유도한다. 이 같은 변화의 실상은 온라인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저널리스트의 역할과 뉴스 실천에 주목할 때 더 분명하게 포착할 수 있다.

3. 온라인 저널리스트의 역할을 둘러싼 인식 변화와 실제

온라인 뉴스 생산과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과연 ‘누가 저널리스트인가’ 또는 ‘저널리스트의 진정한 임무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다. 전문 저널리스트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뉴스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던 사용자가 언제 부턴가 스스로 제작한 뉴스 콘텐츠를 온라인 공간에 올리면서 전통 뉴스 조직의 게이트키퍼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주류 미디어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함께 다양한 웹 출판도구와 강력한 모바일 장치로 무장한 시민들은 전통적인 뉴스 소비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대규모적 범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뉴스 생산자와 배포자로 거듭나고 있다. 가령 인터넷 기반의 저널리즘 환경에서 시민 저널리스트의 뉴스 실천과 뉴스 생산물은 전통적인 저널리즘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Russell, 2007). 진실을 정의할 권리는 누가 지니는가? 어떤 형식과 실천이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가? 정보

소비자는 전통적인 뉴스 매체와 새로운 온라인 매체 가운데 어떤 쪽을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할 것인가?

저널리즘 현실의 변화를 포착하는 예리한 인식이 던지는 이 같은 질문이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함의는 뉴스 이용자가 전통 저널리즘의 권위와 기능에 도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뉴스 이용자가 직접 뉴스 생산에 참여하면서 저널리즘 전문가와 엘리트 취재원이 장악하던 정보 통제와 유통 방식의 정당성은 물론 이와 연관된 주류 뉴스 매체의 해석 권위와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 저널리즘과 전문가로서 저널리스트의 정체성에 변화가 일어나는 조짐이 관찰되기 시작한 것이다(Deuze, 2003).

예를 들어, 온라인 환경에서 다양한 유형의 뉴스 종사자는 뉴스 생산의 의사결정을 폐쇄적으로 관장하는 게이트 단속(gate-keeping)보다 다른 뉴스 이용자의 뉴스 과정 참여를 널리 권장하는 게이트 개방(gate-opening)에 주목한다(Boczkowski, 2004). 실제로 '문단속'보다 '문호개방'을 지향하는 온라인 저널리스트들은 전통 저널리즘의 직업전문주의 기반을 인지적, 규범적, 평가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다(Singer, 2003).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일부 논자는 여러 소셜 뉴스(social news) 사이트가 중심이 되어 성찰적 대화(reflexive conversation)를 촉구하는 뉴스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형식의 게이트키퍼와 의제 설정 능력을 온라인 저널리즘의 잠재성으로 키워갈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Goode, 2009). 다른 한편, 수익성과 신뢰성이 동반 하락하는 뉴스 산업의 위기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뉴스 생산의 문호개방 정책이 다양하면서도 실험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기도 한다(Deuze, et al., 2007). 나아가 온라인 공간이 제공하는 집단지성의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조직 폐쇄적인 게이트키퍼를 벗어난 개방적인 뉴스 생산 활동이 많은 한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훨씬 민주적인 방식의 뉴스 생산과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저널리즘의 조건이라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전문직업주의의 한계에 대한 비판, 뉴스 산업이 직면하는 현실적 위기의 타개, 민주적인 방식의 정보 생산과 유통 구조의 요구 같은

저널리즘 내외 여건의 변화에 기인해 저널리스트와 수용자 시민 간의 관계가 좀 더 수평적인 지위 간의 쌍방향적 정보 교환 관계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저널리스트의 역할과 기능이 개방화를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직업적 고유성 또는 정당성이 전통적인 게이트키퍼와 의제 설정 능력에서 기인하는 만큼 온라인 환경에서 전문 저널리스트의 게이트키퍼 역할이 무력화되기도, 또 뉴스 수용자의 뉴스 생산에 의해 대체된 것도 아니라는 견해도 만만찮다. 이처럼 전문직주의의 게이트키퍼에 기반한 저널리즘의 고유 영역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은 상대적으로 아마추어 시민 저널리스트가 주력하는 뉴스 활동을 공공성과 공익성 문제에 집중하거나 주목하는 진지한 저널리즘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은 특히 뉴스 이용자가 생산하는 뉴스의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블로그를 중심으로 시민의 온라인 뉴스 활동을 분석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공공 문제를 둘러싼 뉴스나 논평의 비율이 지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글의 형식과 주제 역시 대부분 개인 일기 형식을 사용해 사랑, 육아, 취미 같은 사소한 일상사와 사담을 주 내용으로 담아내는 수준이 지배적인 형편이라고 지적한다(Mitchelstein & Boczkowski, 2009).

개인 차원의 블로그는 내용, 작업 성격, 논조, 가치, 포맷 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조건을 제기할 수도 있다(Lowrey, 2006). 뉴스 이용자의 개인적인 뉴스 생산 활동은 권력 관계적 규범과 직업윤리 규정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는 조직 행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정보 통제와 조작의 일상화가 아니라 전통 저널리즘의 근본 가치와 원칙 그리고 윤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과정적 장치로 뉴스 조직의 체계적인 게이트키퍼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블로그로 대표되는 아마추어 시민 저널리즘은 기본적으로 전문직주의를 담보할 수 있는 조직 차원의 저널리즘 관행과 규범적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이 같은 차이가 전통 뉴스 매체와 온라인 시민 저널리스트가 만드는 뉴스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간주된다.

비록 공적 사안에 주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온라인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상당수 시민 저널리스트의 성향 자체가 남다른 자기 확신과 강한 정치적 신념을 보여주는 편이기 때문에 개인 위주의 뉴스 활동에서는 사실 정보의 편향성과 주의·주장의 주장성이 노골화되면서 집합 수준에서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나 왜곡된 합의(false consensus) 같은 비합리적 여론 조성을 유도할 뿐 객관주의 저널리즘이 지닌 긍정적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많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물론 이 같은 비판의 이면에는 조직 차원의 전통적 게이트키퍼를 선호하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조직적 뉴스결정이 사실의 재확인과 검증 그리고 뉴스의 균형성을 조절하는데 기여하는 양호한 절차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한편, 디지털 정보 기술에 기초한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성이 온라인 저널리즘 공간에서 공공 사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토론을 강화시키는 조건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권(public sphere)이 조성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들어 일반 공중의 비전문적인 뉴스 행위를 근간으로 한 유사 저널리즘 활동은 그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위의 견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Thurman, 2008). 다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적 역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제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상의 상반된 연구 시각을 감안할 때 온라인 저널리즘의 잠재력이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의 역할과 기능을 둘러싼 전통적 인식과 관련해 유발하는 변화는 아직 보편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다. 저널리스트들의 전통적 역할인 게이트키퍼와 의제설정 기능이 약화됐다고 생각한다는 보고만큼이나 인터넷 환경에서도 저널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새로운 뉴스 정보를 신속하게 취사선택해 공중에게 알리는 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많다(O'Sullivan & Heinonen, 2008). 설령 온라인 뉴스 매체들이 뉴스 제작의 변화에 주목해 뉴스 이용자의 참여를 모색한다 해도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뉴스 생산 방식과 연관된 저널리즘 문화와 원칙에 익숙한 사정들로 인해 상호작용성의 기술적 잠재력은 실제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실현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도 유효하다(Domingo, 2008). 예컨대, 인쇄 매체의 쇠퇴와 더불어 온라인으로 저널리즘 영역이 대거 이동하는 현실이 저널리즘의 실천관행, 문화, 내용 측면에서 변화를 불러올 것은 분명하지만 대다수의 저널리스트는 아직도 대면 접촉과 전화를 이용한 취재를 선호하며, 온라인의 상호작용성이 언론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증대시킨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직업 저널리스트들은 몸담고 있는 뉴스 조직의 웹 사이트에서 뉴스 이용자의 뉴스 정보를 채택하는 경우조차도 전통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에 따라서 이들을 취사 선별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Domingo, Quandt, Heinonen, Paulussen, Singer, & Vujnovic, 2008).

유럽의 저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인터넷 환경이 유발한 저널리스트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한 연구는 인터넷과 친숙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으며 저널리즘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기술적 요소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 역시 상당하지만 뉴스 원천으로서 여러 웹사이트의 온라인 정보에 대한 신뢰성엔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Sullivan & Heinonen, 2008). 정보 탐색 창구로써 블로그나 토론방의 유용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며 뉴스의 재활용, 이른바 '복제(recycling)'나 '뭉질(shovelware)'의 만연에 따라 이용자 개인 위주의 자기맞춤형(DIY) 저널리즘은 '진짜(real) 저널리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의 상호작용성 덕택에 뉴스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뉴스 이용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거나(Muthukumaraswamy, 2007)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컴퓨터 서버에 누적되는 뉴스 이용자의 뉴스 수용 행동과 반응 정보를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MacGregor, 2007) 기술적 조건 때문에 광범위한 수용자 접촉과 새로운 정보 추출의 가능성에 기댄 저널리스트의 역할 변화에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배경 정보나 뉴스 소재의 아이디어를 훑어보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Cassidy, 2007; Shin & Cameron,

2003). 결국, 직업 저널리스트들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의 기술적 특성이 자신들의 기존 직업 목표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환영하지만 뉴스 작업에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 자신의 전문적인 역할을 침해받거나 저널리스트의 기능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장려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온라인 환경에서 뉴스 양식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 영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 저널리즘에서 활용하는 주요 기술적 특성의 작용은 전통적인 게이트키퍼 과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결과로서 뉴스 양식까지 변화시킨다. 첫째, 뉴스 텍스트의 구성과 포맷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뉴스량(뉴스 길이)이 많아지고 하이퍼링크의 활용이 빈번해진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하는 통합 뉴스편집실이 구축되고 마감시간과 기사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뉴스 기사를 수정할 수 있는 상보 체계(24/7 updates)가 자리 잡고 뉴스의 생명주기가 더욱 빨라진다. 가령, 속보경쟁에 내몰리면서 일일이 오프라인에서 사실을 확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판에 먼저 기사를 올리고 수많은 수용자의 견해와 정보 제공 그리고 정정 과정을 거쳐 정확성을 검증받은 뒤 인쇄판에 최종적인 수정 기사를 내보내는 이른바 ‘선 발행, 후 편집(publish first, edit later)’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윤영철, 2001; Shapiro, 1999). 하지만 이 같은 뉴스 제작 리듬의 변화는 인터넷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다중업무 동시수행 능력(multiskilling)’을 구비할 것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비교적 직무 분화가 분명했던 과거와 달리 온라인 저널리스트의 업무 과중과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뒤따른다. 심층 취재, 사실의 교차 확인, 원작기사 생산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이유로 저널리스트를 거쳐 ‘언어 들은 뉴스’의 공급자로 전락시킬 위험도 상존한다(Quandt, 2008). 덩달아 뉴스 품질의 저하나 기사의 저작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비판의 도마에 오른다.

둘째, 인터넷 활용 자체가 정보 수집과 뉴스 취재 그리고 처리 전반에 걸친 제작 관행의 일부로 자리 잡는다. 예를 들어, 언제나 접속돼 있는 온라인 정보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취재원과의 공식적 접촉을 거치지 않고도 뉴스 소재를 탐색하고 핵심 정보를 취재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인 취재원-기자 간 정보 교환 관계의 성격이 변한다. 뉴스 과정 참여를 강조하며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시민 기자들은 주류 뉴스 매체의 전문 저널리스트에 비해 항상 취재원 접근이 제약받아 왔다는 점에서 취재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블로그 뉴스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직접 목격, 개인 친분과 면식, 자신의 경험이라는 수단과 더불어 인터넷을 취재 도구로 적극 활용하면서 변화하는 취재 관행에 따라 자기 주도적이고 독특한 뉴스 스토리의 구성이 가능해졌다(Reich, 2008).

셋째, 온라인 환경에서 상호작용성의 기술적 잠재력이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소통 창구가 다변화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게시판, 채팅(토론)방, 댓글 공간,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같은 다양한 의견 교환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뉴스 정보의 공유와 제작을 위한 저널리스트와 수용자 간의 협력 플랫폼이 온라인 뉴스 양식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Singer, 2006). 새로운 현상을 포착하려는 다양한 개념(예를 들어, collective intelligence, crowdsourcing, folksonomy)의 등장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전문 저널리스트와 아마추어 수용자가 서로 협동하는 성격(collaborative nature)의 탈근대적 뉴스 작업(Matheson, 2004)이 새로운 뉴스 양식을 계발하도록 자극하는 인식적 기초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처럼 하이퍼텍스트, 상호작용, 그리고 멀티미디어로 대표되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기술적 특성과 결합하며 변화하는 뉴스 양식은 그 예비적 모습을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스케치해 볼 수 있다. 먼저, 온라인 뉴스는 더 이상 완결된 개별 기사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나의 뉴스 스토리 안에 서로 보완적이거나 경쟁적인 의미와 주장들이 중층적으로 구성된다. 블로그 뉴스에서 자주 관찰되듯, 기존 뉴스 기사와 다양한 정보 원천의 수용자 논평을 하나의 블로그 포스팅 안에 병렬적으

로 배치하여 주류 언론의 관점이나 소재 선택에 도전하기도 하고 몇몇 진실 주장을 서로 경쟁시키기도 한다(Hass, 2005). 이제 온라인 뉴스는 전문 저널리스트가 결론까지 완성해 제시하던 ‘단힌 지식체계’로서의 내용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일차로 전문 저널리스트가 기사를 생산해낸다 해도 수많은 뉴스 이용자 일반이 자신의 관심과 이해에 따라 직접 블로그에 관련 글을 게재하거나 댓글, 덧글 혹은 UCC의 형태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논평을 담는 방식으로 경쟁적으로 뉴스 생산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퍼나르기와 링크걸기 등을 통해 파편적인 사실들과 대립적인 논쟁, 심지어 모순된 정보와 여러 관점이 하이퍼텍스트 구성을 통해 서로 맞물리거나 엮물리면서 뉴스의 이야기 구성과 전개가 여러 겹으로 재구성되고 확산된다. 온라인 뉴스의 내용 구성은 공개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동태적인 뉴스 텍스트의 발전이 그 특성으로 부각된다(윤영철, 2001; Singer, 2007). 이런 점에서, 온라인 저널리즘에선 단일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주관적인 세계 인식 사이의 타협과 균형을 찾으려는 전통 저널리즘과 전혀 다른 세계 인식 방식이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김사승, 2008).

한편, 온라인 저널리즘의 뉴스는 형식적 측면에서도 전통적 뉴스와 다른 양식을 보인다. 예컨대, 전통 저널리즘의 주된 뉴스 형식은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가치와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역(逆) 피라미드 구조의 전형을 따른다. 객관주의 저널리즘을 신봉하는 저널리스트들은 대체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한 논거를 담아 설득력 있게 내러티브로 구조화할 때 진실에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직업적 믿음을 보편적인 가치구조로 내면화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되고 검증된 사실을 확보하고 있다면 개인의 주관적 편견과 추측, 의견과 주장을 배제하는 사실의 객관적 나열구조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표준화된 방법으로 인정받고, 또 현실을 재현하는 효과적인 표현 양식으로 널리 권장된다. 어떻게 보면, 역 피라미드 구조는 근대이성적 과학관이 지배하는 근대 사회의 세계 인식과도 잘 조응하는 서술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뉴스의 역 피라미드 진술 구조는 저널리즘 현장의 실제적

유용성과 현실적으로 결부되면서 보편화된 관행적 형식이라는 설명이 더 설득적이다. 이 서술 양식은 제한된 신문지면과 방송시간 때문에 저널리스트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뉴스의 핵심을 앞세우는 제목, 기사 내용과 주제를 요약 제시하는 리드 문장에 이어 관련 정보의 가치나 중요도에 따라 기사의 텍스트를 선택적으로 배열하는 형식을 취한다. 6하 원칙에 따라 사건이나 이슈와 연관된 사실 정보를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조직화하는 형식적 스타일의 구성은 포착하기도 예측하기도 어려운 사회 현실을 뉴스 세계로 안전하게 끌어 들여 재단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제작 관행을 제도화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편한 서술 방식이다. 따라서 뉴스 작성의 표준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 지면 배치, 기사 길이 조정 같은 편집 작업의 편의주의 또한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제작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뉴스 작업의 경제적 효율성도 크다. 뉴스 제작자의 입장에서 효용이 큰 뉴스 형식이라는 것이다. 물론 뉴스 수용자의 측면에서 이점도 있다. 재빨리 뉴스의 전모와 핵심을 한꺼번에 파악하려는 수용자의 정보 욕구를 손쉽게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도 좋아 전통 저널리즘에서 보편적인 기사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아날로그 기술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텍스트 중심의 이야기 전개가 지배적이고 그에 비해 각종 도표나 사진, 그래픽 자료 등은 부차적인 요소로서 기사 텍스트의 이해를 돕는 주변적 정보 장치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체로, 역 피라미드 형식은 엘리트 취재원과 직업 저널리스트의 정보 교환 관계가 중심축을 이루고 뉴스 조직이 뉴스 생산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전통적인 게이트키퍼 방식에 적합한 기사 양식이기도 하다. 정보(사실) 요소의 총족 면이나 내러티브 구성 면에서도 개별 기사마다 자기 완결성을 지녀야 하므로 뉴스 작성의 전 과정을 전적으로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업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편리한 글쓰기 방식이다. 따라서 뉴스 수용자의 뉴스 과정 참여는 역 피라미드형 구성이 지배적인 서술 구조에서는 주변적 취재원이라는 역할 정도에서 최소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역 피라미드 서술 형식은 전통 뉴스 조직이 주도하

는 일방적 의제 설정이나 정보의 '전달'에 적합한 형태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뉴스 수용자는 뉴스의 결정권과 배포권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불평등한 지위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역 피라미드형 기사가 보편적인 뉴스의 공급과 소비 구조에서 직업 저널리스트와 뉴스 수용자의 관계는 뉴스의 의미를 둘러싼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가치사슬 관계에서 언제나 주변부로 밀려나 있기 마련이었다. 한마디로, 뉴스 공급자와 소비자가 뚜렷이 구분되고 둘 사이의 관계가 일방적이고 비대칭적인(one-way, asymmetric) 정보 유통 구조를 반영하는 뉴스 양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의 유비쿼터스형 뉴스 조직화 원리는 이에 조응하는 취재 보도 관행의 변화와 더불어 뉴스 형식의 일대 변환을 초래한다. 대표적으로, 웹 환경의 인터넷 뉴스는 더 이상 역 피라미드 형식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야기 전개(story-telling)는 선형 논리적이고 시간 순차적인 아날로그 형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텍스트성과 멀티미디어성을 이용해 여러 층의 정보 페이지 또는 분절된 정보 덩어리(chunking)를 비선형적으로 조합하거나 탈위계적으로 배열하기 때문에 온라인 뉴스 세계에선 하나의 사건과 이슈를 두고도 수많은 이야기와 의미가 동시에 생성되고 병존하고 경쟁할 수 있다(윤영철, 2001). 이와 더불어, 이제까지 뉴스 텍스트 구성의 주변 장치로 간주됐던 도표, 그래프, 사진 같은 이미지 요소를 입체적으로 링크시키는 이야기 디자인(story-design)이 중요한 형식적 양식의 핵심 문제로 떠오른다. 풍부한 링크걸기와 트랙백, 관련 기사의 모뎀 편집 박스, 퍼나르기, 댓글달기, 이-메일 전송 또는 리트윗 등의 디지털 편집도구는 이야기 디자인의 형식을 다양화하면서도 내용 변화의 주요 기제로 작동한다.

예컨대, 다양한 저널리즘 유형이 공존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주류 뉴스 사이트는 단지 '씨앗뉴스(seed news)'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개방과 참여 그리고 공유의 가치가 주도하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씨앗뉴스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뉴스 관련

사이트가 정보 전파의 유통 채널로 작동하면서 다양한 디지털 편집도구의 도움을 받아 역 피라미드 전형에서 탈피한 새로운 글쓰기 방식이 등장하고 기사의 형식이 변화해 간다. 뿐만 아니라 뉴스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과정에서 뉴스의 내용과 의미 또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의미 연결망의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며 뉴스가 생산되고 소비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Im, Kim, Kim, & Kim, 2010). 주류 언론에 고용된 전문 저널리스트는 물론 시민 기자와 블로거, 프리랜스 배낭 언론인들이 뉴스 확산 과정에 참여한 결과, 시초 뉴스가 출판된 후에도 그 이야기 전개는 기록이 남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이용하는 열린 게이트키퍼를 통해 새로운 뉴스로 이어지거나 내용과 형식 측면 모두에서 자기 증식과 조합적 변형을 지속해 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주요 뉴스 정보의 배포와 소비가 한편에서 제작한 완결된 이야기 형태로 다른 어느 한쪽의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뉴스 이용자의 참여와 관여를 통해 사회 관계적으로 구조화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연결망 속에서 전방위적으로(multidirectional) 확산되면서 내용과 형식이 변형되고 의미가 재생성되는 자기 증식의 진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온라인 뉴스의 사회적 확산 과정에 주목해 볼 때, 온라인 저널리즘에선 더 이상 뉴스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온라인 뉴스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는 모두 뉴스 소비자(news prosumer)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훨씬 편하고(김은미 외, 2007), 이런 관점을 더 확장해보면 뉴스는 완성된 형태에 담기 기계적으로 단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집단적으로 재구성되는 ‘열린 지식체계’ 현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 온라인 뉴스 양식의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드러나는 변화 양상에 주목할 때 뉴스란 더 이상 하나의 고정된 맥락 안에 갇힌 채 자기 완결적이며 원자적인 의미구성체로 존재하면서 일정 기간 애초 모습대로 사회 공간으로 전파되며 생존하다 소멸하는 닫힌 지식체계가 아니다. 그보다 과정(process)으로서 또 연결(connection)의 문제(Matheson, 2004)로서 사회적 확산 경로를 이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의미가 재생성되고, 뉴스

의 소비가 또 다른 새로운 뉴스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열린 지식체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뉴스의 의미화 과정은 뉴스 조직과 전문 저널리스트가 독점적으로 재단하는 고정된 전유물이 아니라 뉴스 이용자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집단적으로 재구성하는 사회적 공개재(公改財)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정확한 정보가 소통되고 다양한 관점과 견해가 논리적 우위를 따지며 의미 공유를 통한 상호 이해와 신뢰 형성이 이뤄지는가에 따라 사회적 재화로서 뉴스의 부가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새로운 관점의 뉴스 정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가 완성된 뉴스제품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뉴스와 수용자가 상호작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뉴스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때 저널리즘으로서 사회적 공헌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온라인 환경에선 뉴스 양식의 변화와 함께 뉴스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초래된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저널리즘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뉴스가치로는 시의성, 저명성, 근접성, 영향성, 갈등성, 인간적 흥미, 진기성, 영상 볼거리, 부정성, 정보 유용성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뉴스가치의 위계와 상호관련성은 물론 일부는 그 유래조차 불분명하다. 뉴스가치는 대개 해당 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반영하며 또 역사적으로 형성되므로 시대에 따라 뉴스가치의 구성이나 개별 가치의 중요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만큼 실제로 뉴스가치라는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다(Downie & Kaiser, 2003).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뉴스가치가 높거나 뉴스가치의 요소가 많은 사안일수록 뉴스로 기사화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식견 있는 시민을 양성하고 사회의 이성적 숙의를 북돋아 민주적 공동체의 공동선과 공공 이해를 추구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저널리즘의 규범적 책무와 궁극적 존재가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저널리즘의 상업성과 결탁해 사회적 역기능을 초래하며 오·남용될 소지가 다분한 뉴스가치도 있다. 뉴스가치가 높은 뉴스 기사라고 해서 기사의 품질까지 항상 우수하거나 시민의 자치와 민주주의 가치 구

현에 언제나 긍정적인 쪽으로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직업전문주의 맥락에서 연유하기는 했어도 일부 뉴스가치는 참여와 공유 그리고 개방을 강조하는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거나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쿠넬리우스(Kunelius, 2006)는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도전받고 있는 전통적인 직업전문주의 저널리즘과 대비시켜 이른바 ‘좋은 저널리즘(good journalism)’의 영역을 보여주고자 전통적 뉴스가치와 비교되는 새로운 가치 영역을 제시한다.

쿠넬리우스의 논의에 따르면, 사실과 객관성, 전문지식, 사실적 묘사, 그리고 토론과 논쟁의 장으로서 전통적인 저널리즘이 고수해 온 핵심 영역은 새로운 가치 영역의 부상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관점의 다원성(plurality of perspectives), 새로운 시각(new perspectives), 낙관주의(optimism), 국지적 관심사(particular use value), 비판적 탐사(critical investigation), 전망과 예측(prediction), 공적 토론의 주도과 소수 의견 지원(supporting the underdog in public debate), 윤리적 반성(ethical reflection) 같은 차원들은 참여-공유-개방의 정신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민 저널리스트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뉴스 양식에 적합한 뉴스가치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가치 영역은 전통적인 뉴스가치와 경쟁하며 대체하는 측면도 있지만 서로 보완하면서 공존하는 측면도 지닌다(Singer, 2007). 많은 경우, 전통 뉴스 매체에서 뉴스의 전형적인 소재는 시의성을 지닌 공적 사안 또는 공공 이해와 관련된 것이므로 저명성, 영향성, 갈등성, 부정성 등이 시의성과 함께 중요한 뉴스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였다. 이처럼 공공 서비스와 연관해 뉴스가치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임무는 저널리즘 세계의 전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직업 저널리스트의 고유 영역이었다.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또는 사회 주변적인 일상사라도 새롭거나 도발적인 관점 또는 참신한 해석과 유머를 제공하거나 공분을 유발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새로운 뉴스가치를 지닌 중요한 뉴스 의제로 부각되기도 한다. 시민 개인의 이야기가

인터넷 공간에서 화제로 떠오르면 전통 뉴스 매체가 이를 받아 뉴스 기사로 보도하는 것이다. 이른바 인터넷의 디지털 연결망 환경이 제공하는 의제 파급(agenda rippling)과 일반 네티즌이 주도하는 역(逆) 의제 설정(reversed agenda setting)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김성태·이영환, 2006). 이러한 변화는 어떤 사안을 둘러싼 뉴스가치의 판단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영역이 저널리즘 세계를 구축하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의제 설정의 방향 변화에 담긴 저널리즘적인 함의는 크다. 뉴스 생산 과정의 권력이동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통 뉴스 조직과 직업 저널리스트가 거의 독점해 온 현실 정의와 권력 감시 그리고 사회 비판 기능을 시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뉴스 과정이 함께 분점하는 것이다. 뉴스 이용자가 직접 뉴스 내용에 접근해 현실의 재구성에 관여함으로써 뉴스의 진정한 접근권이 보장된다면 관점과 의견을 다양성을 통해 공공 문제와 관련된 시민의 관심과 지식, 그리고 자치 능력을 배양해 민주제도적 가치 실천이 더욱 고양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과 전망이 열린다.

물론 블로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실상이 과장돼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하스(Haas, 2005)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실제로 블로거들은 기성 언론이 주목하는 뉴스의 주제 선택이나 취재원 활용 범주에 강력하게 도전하지 않는다. 블로그 포스팅의 하이퍼링크 연결지점을 추적해가면 결국 주류 뉴스 매체에 저작권이 있는 원래 기사(original reporting)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주류 언론의 인덱스 효과(index effect)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주류 미디어의 기성 시각을 재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실제로 블로거들도 특정 주제의 정보를 상당부분 전통 뉴스 매체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의견 지도층(이른바, A-blogger)은 사실상 일부 소수에 지나지 않고 이들 역시 주류 뉴스 조직에 소속돼 있거나 주류 매체에 핵심 정보를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블로고스피어(blogosphere)는 대안적 사고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공론장이라기보다 주류 언론의 시각과 견해를 재매개하는 일종의 ‘온라인 메아리방(online echo chamber)’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Haas, 2005). 온라인 시민 저널리스트의 독자적인 뉴스가치 판단력이 의심스럽게 여겨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온라인 환경의 뉴스 확산 과정을 추적한 사례 연구(Im, et al., 2010)나 2005년 프랑스 폭동 과정의 시민 저널리즘 현상을 분석한 연구(Russell, 2007)는 온라인 뉴스가 전문 저널리스트와 비전문 ‘아마추어’ 시민들의 합작품이라는 새로운 경향을 보여준다. 온라인 담론 과정에 참여하는 뉴스 이용자와 전문 저널리스트 간의 경쟁적 상호작용이 뉴스 프레임의 재구성으로 귀결되는 분석(Zhou & Moy, 2005)에서도 온라인 저널리즘의 협력적 성격이 동일한 사안이라도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문제인가를 판단하는 측면에서 기존 오프라인 뉴스 조직의 뉴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온라인 뉴스 과정에서 뉴스가치의 판단과 정의는 더 이상 전문 직업 저널리스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뉴스를 소비하는 뉴스 이용자가 직업 저널리스트처럼 뉴스가치를 세밀하게 인식한다거나 새로운 뉴스가치가 돋보이는 뉴스를 특별히 더 선호한다는 명백한 경험적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김은미 · 임영호 · 김예란 · 김경모, 2007).

5. 맺음말

역사적으로 객관주의 저널리즘 사조가 형성되면서 전통 저널리즘은 근대적 시공간 개념을 뉴스 조직적으로 체화해서 이를 시공간적 뉴스망으로 편제했다. 이 같은 조직화 원리를 바탕으로 구축한 사실성의 망을 독점한 전문 저널리스트들은 조직 폐쇄적인 게이트키퍼를 통해 배타적인 지위에서 뉴스결정을 내리고 사회현실을 뉴스 현실로 재구성하는 뉴스작업을 관행적으로 수행해 왔다. 표준화된 뉴스 과정은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시공간 효율적으로 배치·배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 수요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 일관되고 안정적인 뉴스 생산과 배포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인터넷과 웹 기반의 온라인 저널리즘이 등장하면서 뉴스 생태계가 혁신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 기술은 한편으로 시장 융합과 이종 매체 간의 경계를 허물어 전통 저널리즘을 해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온라인으로 저널리즘 영역을 집중시킨 뒤 재구조화는 과정에서 중요한 동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변화는 다양한 층위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찰된다.

우선, 블로거, 시민 기자, 프리랜스 배낭 언론인 등 새로운 유형의 뉴스 생산자와 공급자가 온라인 저널리즘으로 유입되면서 저널리즘 생태계가 확장, 세분화됐다. 다양한 유형의 저널리즘 영역이 온라인 공간에서 경쟁하면서 공존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에선 하루 24시간 일 년 365일 쉼 없이 뉴스가 생산되는 뉴스 조직의 유비쿼터스화가 도래하고 있다. 이 같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는 뉴스 생산 과정의 변화를 견인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시공간적 뉴스망은 해체 선상에 있고, ‘원 소스 멀티 유저(one-source multi-user)’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오프라인 뉴스편집실의 통합이 이뤄지면서 뉴스 조직의 외연이 확장됐다(황용석, 2003).

뉴스 생산 과정의 변화는 뉴스의 취재와 보도 관행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엘리트 취재원-전문 저널리스트 중심에서 온라인 저널리스트-뉴스 이용자 중심으로 뉴스 생산의 권력 이동이 진행 중이며, 비선형적인 뉴스 제작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조직 폐쇄적 성격의 게이트키퍼 역시 개방화 쪽으로 성격이 변하고 있다. 열린 게이트키퍼 환경은 참여 기조의 시민 저널리즘과 대안적 저널리즘의 활성화를 유도한다(Deuze, Bruns, & Neuberger, 2007).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에선 디지털 정보 기술의 특징에 맞춰 뉴스 양식의 변화도 관찰된다. 객관성, 공정성 같은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전통적 가치 대신 주관성, 당파성, 주창주의 저널리즘 같은 새로운 저널리

즘 가치가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전래의 뉴스가치는 물론 시민 저널리즘이 선호하는 도발성, 국지적 관심사, 낙관주의 같은 새로운 뉴스가치가 공존하며 서로 경쟁한다.

뉴스 양식의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변화도 눈에 들어온다. 예컨대, 역 피라미드형 기사로 상징되는 뉴스 스타일의 전형이 해체되고 다양한 글쓰기 방식과 비선형적 뉴스 텍스트 구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뉴스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를 허물어 온라인 저널리즘 관련자는 모두가 뉴스 소비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뉴스는 완결되고 닫힌 구조로 기계적으로 전파되던 과거의 사회적 존재 양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내용과 이야기가 재생성되고 열린 구조로 자기 증식하며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이해되는 열린 지식체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전통 저널리즘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진실 구성의 해석 권위가 도전받고 있으며, 단일한 인식체계로서 뉴스관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과 견해의 다양한 인식체계가 공존하고 서로 경쟁하는 탈근대적 뉴스관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에서 뉴스 개념은 전통과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변화하는 뉴스 세계의 모습에 주목한다면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이해하던 뉴스의 공통 차원과 속성은 상당부분 해체되는 경로를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위기감과 기대감이 공존한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가 부여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새로운 수익성을 창출하는 뉴스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한다면 저널리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의 근본 가치가 훼손될 우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여전하기 때문이다(김사승, 2011; Cohen, 2002; Doctor, 2010; Jones, 2009).

온라인 뉴스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하려는 저널리즘 연구자의 시선 역시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이 교차하고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미온적이다. 이 같은 유보적 자세는 뉴스 현상은 급변하는 데 비해 적용하는 이론과 방법론적 접근은 변화 양상을 따라잡지 못해 현상과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과 관련 깊다(Mitchelstein & Boczkowski, 2009, 2010). 낡은 관점의 연구 틀로는 변화 자체를 정확하게 포착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진단과 처방이 애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뉴스 과정을 고찰한 관련 선행 연구의 검토로부터 간략하게 함의를 언급해 볼 수 있다. 먼저, 온라인 뉴스 과정에서 관찰되는 새로운 변화와 전통의 경계 현상은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전통적 뉴스 개념에서 유지되던 물질-형식 측면의 개념 요소(예컨대, 시공간적 뉴스망, 게이트키퍼, 작업 표준화 등)와 정신-내용 측면의 개념 요소(예컨대, 직업전문주의, 뉴스가치, 뉴스양식 등) 간의 ‘불편한 동거’에 본격적인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수익성과 신뢰성의 동반 하락(double-deep)으로 상징되는 주류 뉴스 산업의 위기는 전통적인 뉴스 개념을 구성하는 차원과 속성의 역사적 시효 소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뉴스 과정은 전통의 해체를 통해 뉴스 개념을 재구성함으로써 활로를 모색하려는 기존 뉴스 조직의 다양한 자구책과 신생 뉴스 공급자의 실험적인 뉴스 행위가 한데 어우러져 서로 경쟁하고 대체하고 보완하는 변화의 현장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방향은 공유, 참여, 개방, 탈위계, 비선형, 진화, 열린 지식체계 같은 키워드의 조합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현실 구성을 둘러싼 전통 저널리즘의 해석 권위가 해체되고 온라인 저널리즘 영역을 중심으로 해석 권위의 시민적 재구성과 분점 평준화를 통한 뉴스 생산과 유통 구조의 민주화 가능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례 없이 다양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뉴스 소비자의 등장이나 뉴스 생산의 권력 축 이동 현상(엘리트 취재원과 직업 저널리스트 간의 정보 교환 관계 → 온라인 저널리스트와 뉴스 이용 시민 간의 정보 교환 관계)이 뉴스와 정보의 다양성을 보장할 것 같지만 그와 같은 변화가 해석 권위의 무정부주의(anarchism)로 귀결될지 아니면 다양한 해석 권위의 공존(co-existence)으로 나아갈지는 현재로서는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저널리즘 실천을 행하는 다양한 뉴스 사

이트들로 구성되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지형이 어떻게 진지한 저널리즘을 구현해 갈 수 있을지 뉴스의 미래에 대한 질문은 온라인 뉴스 과정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냉철한 관찰과 심도 깊은 분석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이 글은 온라인 저널리즘 환경을 중심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일련의 뉴스 현상을 분석한 연구들을 개념 수준에서 되돌아보고 부분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친 한계를 지닌다. 온라인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적 역할의 관계 고찰이나 저널리즘 규범과 윤리의 맥락 등에서 온라인 뉴스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려는 문제적 시도는 언급하지 못했다. 온라인 뉴스의 생산과 소비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향이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찰되는 뉴스 소비양식 측면의 변화 양상에도 주목하지 못했다. 온라인 뉴스의 내용과 관련된 국내외의 경험 분석 연구 역시 상당수가 생략된 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 영역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관련 연구가 보완적으로 이어져 온라인 뉴스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경희 (2009). 『한국사회와 인터넷 저널리즘』. 서울: 한울.
- 김사승 (2008). 저널리즘의 기술적 재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뉴스 생산 과정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4권 2호, 7~47.
- 김사승 (2011). 『디지털 생태계의 뉴스 생산 모델』. 서울: 관훈클럽.
- 김성태·이영환 (2006).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의제 설정 모델의 적용: 의제 과급과 역 의제 설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3호, 175~204.
- 김은미·김경모·김예란·임영호 (2007). 『저널리즘의 미래변화』.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윤영철 (2001). 온라인 저널리즘과 뉴스 패러다임의 변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7호, 182~213.
- 이민웅 (2003). 『저널리즘: 위기·변화·지속』. 서울: 나남.
- 임종수 (2006). 온라인 뉴스 양식과 저널리즘의 변화. 『커뮤니케이션이론』, 2권 2호, 37~73.
- Bird, S. (2009). The future of journalism in the digital environment. *Journalism*, 10(3), 293~295.
- Boczkowski, P. (2004). *Digitizing the news: Innovation in online newspapers*. Cambridge, MA: MIT Press.
- Cassidy, W. (2007). Online news credibility: An examination of the perceptions of newspaper journalist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2), 478~498.
- Cohen, E. (2002). Online journalism as market-driven journalism.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6(4), 532~548.
- Deuze, M., Bruns, A., & Neuberger, C. (2007). Preparing for an age of participatory news. *Journalism Practice*, 1(3), 322~338.
- Deuze, M. (2003). The web and its journalisms: Considering the consequences of different types of news media online. *New Media & Society*, 5(2), 203~230.

- Doctor, K. (2010). *Newsnomics: 12 new trends that will shape the news you get*. New York: St. Martin's Press.
- Domingo, D. (2008). Interactivity in the daily routines of online newsrooms: Dealing with an uncomfortable myth.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3), 680~704.
- Domingo, D., Quandt, T., Heinonen, A., Paulussen, S., Singer, B., & Vujnovic, M. (2008). Participatory journalism practices in the media and beyond: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initiatives in online newspapers. *Journalism Practice, 2*(3), 326~342.
- Goode, L. (2009). Social news, citizen journalism and democracy. *New Media & Society, 11*(8), 1287~1305.
- Haas, T. (2005). From 'public journalism' to the 'public's journalism'?: Rhetoric and reality in the discourse on weblogs. *Journalism Studies, 3*, 387~396.
- Hermida, A. (2010). Twittering the news. *Journalism Practice, 4*(3), 297~308.
- Im, Y., Kim, E., Kim, K., & Kim, Y. (2010). The emerging mediascape, same old theories?: A case study of online news diffusion in Korea. *New Media & Society, 13*(4), 605~625.
- Jenkins, H. (2006).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Jones, A. (2009). *The future of the news that feeds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awamoto, K. (2003). *Digital journalism: Emerging media and the changing horizons of journalism*.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 Kunelius, R. (2006). Good journalism: On the evaluation criteria of some interested and experienced actors. *Journalism Studies, 7*(5), 671~690.
- Lowrey, W. (2006). Mapping the journalism-blogging relationship. *Journalism, 7*(4), 477~500.
- MacGregor, P. (2007). Tracking the online audience: metric data start a subtle revolution. *Journalism Studies, 8*(2), 280~298.
- Matheson, D. (2004). Weblogs and the epistemology of the news: Some trends in online journalism. *New Media & Society, 6*(4), 443~468.
- Mitchelstein, E., & Boczkowski, P. (2009). Between tradition and change: A review of recent research on online news production. *Journalism, 10*(5), 562~586.

- Mitchelstein, E., & Boczkowski, P. (2010). Online news consumption research: An assessment of past work and an agenda for the future. *New Media & Society*, 12(7), 1085~1102.
- Muthukumaraswamy, K. (2010). When the media meet crowds of wisdom: How journalists are tapping into audience expertise and manpower for the processes of newsgathering. *Journalism Practice*, 4(1), 48~65.
- O'Sullivan, J., & Heinonen, A. (2008). Old values, new media: Journalism role perception in a changing world. *Journalism Practice*, 2(3), 357~371.
- Quandt, T. (2008). News tuning and content management: An observation study of old and new routines in German online newsrooms. In C. Paterson & D. Domingo (eds.), *Making online news: The ethnography of new media production* (pp.77~97). New York: Peter Lang.
- Reich, Z. (2008). How citizens create news stories: The “news access” problem reversed. *Journalism Studies*, 9(5), 739~758.
- Russell, A. (2007). Digital communication networks and the journalistic field: The 2005 French riots.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24(4), 285~302.
- Shapiro, C., & Varian, H. (1999). *Information rules: A strategic guide to the network economy*.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Shin, J., & Cameron, G. (2003). The interplay of professional and cultural factors in the online source-reporter relationship. *Journalism Studies*, 4(2), 253~272.
- Singer, J. (2003). Who are these guys?: The online challenge to the notion of journalistic professionalism. *Journalism*, 4(2), 139~163.
- Singer, J. (2006). Stepping back from the Gate: Online newspaper editors and the co-production of content in campaign 2004.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3(2), 265~280.
- Singer, J. (2007). Contested autonomy: Professional and popular claim on journalistic norms. *Journalism Studies*, 8(1), 79~95.
- Stassen, W. (2010). Your news in 140 characters: Exploring the role of social media in journalism. *Global Media Journal*, 4(1), 116~131.
- Thurman, N. (2008). Forums for citizen journalism?: Adoption of user-generated content initiatives by online news media. *New Media & Society*, 10(1), 139~157.
- Ward, M. (2002). *Journalism online*. London: Focal Press.
- Zelizer, B. (2004). Taking journalism seriously: News and academy.

Thousands Oaks, CA: Sage.

Zhou, Y., & Moy, P. (2005). Parsing framing processes: The interplay between online public opinion and media coverage. *Journal of Communication*, 57(1), 79~98.

최초 투고일 • 2011.12.30

논문 수정일 • 2012.02.07

게재 확정일 • 2012.02.09